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6월 3일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관람하게 된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넘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몸동과 기백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 정서와 풍부한 예술적 형상, 천변만화하는 대규모의 배경대화폭으로 공연을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으며 평양의 밤하늘에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출연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문학예술부분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친 평양시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강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내이시며 인민이 리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따스이 손저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보았다.

개막연설을 박춘남문화상이 하였다. 《인민의 나라》 제명이 평양의 밤하늘가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가운데 공연 무대가 펼쳐졌다.

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인 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관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사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2일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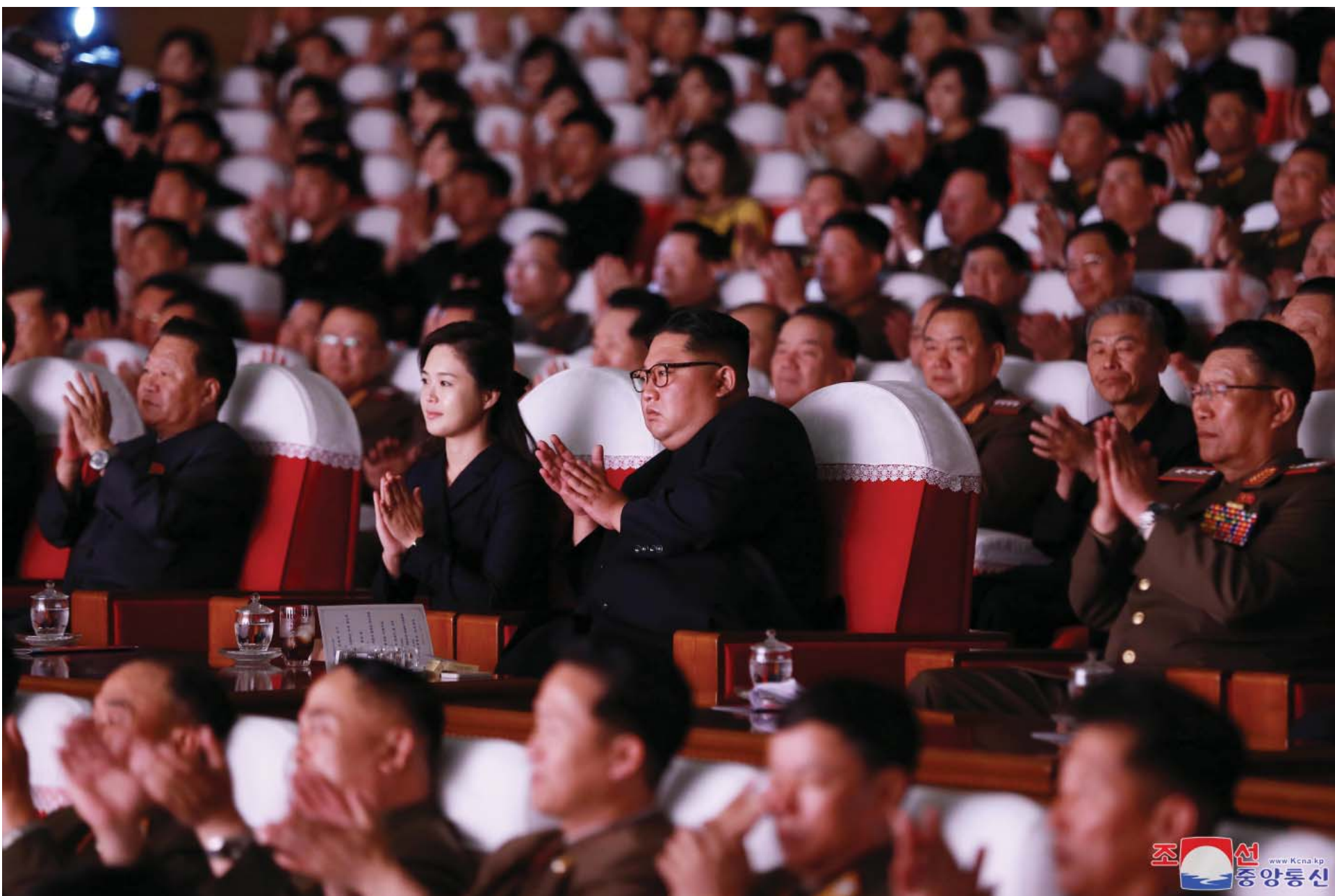
자나 깨나 뵙고 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치게 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과 관람자들의 크나큰 행복과 환희로 공연장소는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동지께 두 군관의 안해가 전체 군인가족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담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4군단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군인가족들을 총잡은 남편들과 환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부사수들로 시대와 인민앞에 내세워주신 절세위인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의 세계, 당중앙뜨락과 잇닿은 초소마다에 꽃피는 사랑의 전설들을 가슴뜨겁게 펼쳐보



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비행사의 아들과 영광의 대회장에서 뜻깊은 이름을 받아안은 어린이를 몸가끼이 불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군인가족들사이의 뜨거운 혈연의정이 넘치는 장내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부대마다에 깃든 조선로동당의 령도업적과 자기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적감화력이 큰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준 공연은 전군의 장병들과 군인가족들의 마음이 당중앙과 어떻게

이 대화시 《이야기하라 사랑의 생명수여》, 대화시와 합창 《천리라도 만리라도》가 무대에 올라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독창과 방창 《그리움》,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령도자》, 손풍금병창과 합창 《우리의 국기》, 합창 《불라는 소원》, 기악3병창 《아름다운 비행구름》, 민족기악대병창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에 으뜸일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령도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불라는 충정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는 군인가족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애국의 한마음안고 누가 보건말건 어떤 명에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며 방선초소를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려가는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막간극 《꼭같은 마음》, 2인극 《덕과 정》, 대중창이아

기 《애국의 푸른 숲 펼쳐여가리》, 노래춤이야기 《자력갱생기치높이 총진군 다그치세》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간직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는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조국의 방선은 금성철벽이라는것을 구가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게 혈연의 정으로 이어져있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옹위하는 군인가족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알게 한 공연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가족들이 당정책의 훌륭한 해설자, 선전자로서 공연무대에 펼친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초소마다에서 더 활짝 꽃피워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총잡은 남편들과 환전호에서 서있는 군인가족들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우리 혁명을 사수하는 믿음직한 부사수, 혁명의 작식대원들로 정답게 불러주시며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을 우리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의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정집을 다녀가는 자식들을 위하는 다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여

공화국에서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가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썼다. «북에서는 자기의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품미해 가고있다. 북에서는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이 개화발전하고있다.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민족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고있다. 얼마나 부러운 현실인가.»

민족성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크나큰 실력을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화통정신이 체현되어있는 민족성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여기시고 인민의 자주적경제력과 애국위업실현에서 그를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도록 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0년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바람이 행성을 어지럽혀던 시기였으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박동향이 극도에 달하던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해도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수한 민족전통과 풍습이 온 나라에 더욱 꽃피어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에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이 깊고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정신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데로부터 생긴다고 하시면서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한가위)과 같은 민족명절을 더 뜻깊게 쇠도록 하고 아이들이 즐겨 노는 유희오락의 가지수까지 헤아리시며 연피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메뚜기치기같은 민족놀이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어느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민족이 오래동안 전통적으로 쇠어온 민족절에 대해 교시하시면서 설명절 풍습에 대하여 들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한해동안 힘겹게 일하다가 설이 오면 지방마다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먹고 유희오락은 오락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피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물론 현대인들이고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한 사람들이지만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설을 어떻게 쇠였는가를 아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족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태도의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있다고 하시었다. 계속해서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을 수 있다고, 민족적특성을 더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을 수 있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다.

바로 이런분위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금진강총봉청년발진소를 찾으며 근저에 지니는 휴양소지봉의 물매를 급하게 하신것을 보시고 조선식건물담배지봉처리를 하고 조선기와를 잇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지방들에서도 조선식기와와 집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흐려지거나 달라질수 없는것이 민족적전통이어서 우리 사람들은 조물제물이나 세공품 같은것은 잘 만든다고 하시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시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신의주의 한 공장에서 만든 초콜모자도 손수 써보시며 조물제작술의 전통을 살려 맵시있고 실용가치가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든 생산자들을 높이 칭찬하시기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도록 이르시었다.

민간교양을 비롯한 전통적인 고려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들리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강제와 회령의 고려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수천년동안 고려약만 가지고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시면서 전통적인 고려약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민족적전통을 깊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와 같은 일상음료와 수세미오리와 같은 작물 하나에도 그리고 계몽기어나 봉산탈춤과 같은 고유한 노래선물, 춤가락에도 뜨겁게 어리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과 풍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

한 령도밑에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민족음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족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며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고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건축형식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남성들이 결혼식때나 명절날에 입는 조선바지저고리차림에도 민족옷단장을 장려하도록 하시는데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여러 가지 새집들이 한 가정을 축하 방문하실 때 기념품으로 들고가신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에도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가 깃들여있었다. 미림송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는 민족의 전통적인 승마풍습을 후세에 길이 물려가며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생활을 누리도록 관심하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애민현신의 세계를 전하고있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민족성을 계승발전시켜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북은 조선 민족의 얼이 살아 맥박치는 민족의 성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본다.》고 소감을 터놓았던 것이다.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어 공화국에서 민족의 넘어 어린 우수한 전통은 더욱 개화발전하고있다. **김 별**

마안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일화가 있다. 당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포도와 미혼진에서 회의를 하신 후 주체 25(1936)년 4월 압록강연안을 향하여 동강으로 나가시던 길에 《민생단》 혐의로 박해를 받고있는 아동단원들을 찾아 마안산에 들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짜늘한 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냈고 앓아누워있는 아동단원들에게 손수 자신이 의 모모를 더해주고 자신께서 힘겨운 간직하고다니시던 강반성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돈 20원을 내놓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도록 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사망을 깊이 전해주시는 마안산.

그 이름을 단 마안산당요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온갖 참바람과 시련을 헤쳐며 자신들을 지켜주고 따듯이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품과 행복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어느날 박천전직공장 노동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한장

의 담요를 받게 되었다. 그런 고급담요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본으로 보내신것이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종의 담요를 생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었다.

만저도 보시고 쓸어도 보시고

## 마안산담요

무게도 가벼워보이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주 잘 만들었다 고, 손맛도 좋고 가벼우면서도 더울것이라고, 박천전직공장에서 만든 아닐론고급모포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그이께 모포의 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렸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럼 자신께서 안을 내놓겠다고 하시며 새로 만든 모포의 이름을 《마안산》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마안산담요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경공업부에서 마안산담요와 같이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절실이 있는 제품들과 인민생활에 절실한 필요한 소비품생산을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마안산담요는 상표가 좋다고, 《마안산》이라는 상표에는 후대들을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여있었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의 유래를 보아사라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제2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박천전직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가 괜찮다고, 마안산담요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담요보다 질이 좋고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것만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었다.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고싶어하신 아버지사랑이 깃들여 더없이 포근한 마안산담요는 오늘도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인민사랑을 전하며 필필이 생산되고있다.

백광수

## 다함없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공예 《주체의 해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108(2014)년 태양절에 즈음하여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에서 울려진 선율이였다. 전반부부분이 옥돌로 되어있는 공예품의 회적식원형부분의 한 면에는 활활 타오르는 주체의 해불을 동으로 부각형상하였으며 《주체》라는 글과 《공고민주주의공화국》을 의미하는 락

자로 된 글이 프랑스어로 새겨진 동판이 붙여있다. 다른 한편에는 아프리카도가 형성되어있다.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자주의 빛발이 아프리카를 환히 비쳐준다는것을 의미하며 공고민주주의공화국의 탁자와 아프리카도는 주체사상보급사업이 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고있는 민주공고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본기자**

## ◎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

### 다정 하신 말씀

주체104(2015)년 1월 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영화원, 애육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원아들의 공연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이 끝나자 원아들과 사친을 찍겠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대로 교양원들은 서둘러 사진찍을 준비를 하였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으로 맨 앞장에서 뛰어

###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시간

6년전 5월 어느날 평양시도향산단산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몇시에 야영소로 돌아오는가고 물으시었다. 한 일군이 오 후 5시경에야 등산을 끝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여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야영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 보시었다. 그이께서 학생용기방생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것은 단지 맛있는 책가방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몇해전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 《소나무》책가방에 어린 뜻

학생소년들이 리용하는 《소나무》책가방에는 후대들을 위하여 기술이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여러 가지 담겨 있다. 그이께서 학생용기방생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것은 단지 맛있는 책가방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몇해전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노래가 운데는 《인정의 세계》도 있다. 주체 104(2015)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뜨거운 인정미와 의리의 세계를 진실하고 감동있게 형상하고있다. 어쩌면 그리도 친근할까 정도로 따듯한 미소

### 노래로 보는 인민의 마음 《인정의 세계》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라는 심장 아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을지도 모르겠네 똑 같은 인정미에

조선훈민은 예로부터 정에 살고 정을 그리워 하는 다정다감한 민족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간적으로 대우되고

그이께서는 그리로 가까이 하시게 하시니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참으로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분이였다.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순간은 인민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마련해놓았을 때이다. 어느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신적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쁨의 웃음꽃을 한껏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에 담긴 사진들을 원수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었다. 정말 이런 면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머물러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고 싶을때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데 같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부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가고자

심한 손길로 온 나라 가정들 돌보고 정을 부어주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창조기려를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었다. 창조기려가 완공되고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마친 어느날 그이께서는 소문도 없이 만수동의 세 가정을 찾으시었다. 로동자부부와 교육자가 사는 평범한 가정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친 부모들보다 먼저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해주며 방앗바다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자신께서 오늘 새집들이에 기념품을 가지고 왔다고, 새집들이를

이러한 집에 갈 때에는 성향을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나라 풍습이기때문에 오늘 성향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며 따스한 체온이 그대로 스민 성향과 함께 천연색TV, 그릇류, 어린이용품등을 안겨주시었다. 경양유치원에 가시어는 의사를하러 하는 어린이에게 자신도 진찰해달라시며 팔을 내미시고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들린 리발실에서는 다음번에 꼭 이곳에 와서 리발을 하겠다고 하시며 인민들과 허물없이 마음을 더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시기에 축구경기를 마친 소년도 달려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여러판을 부쳤고 부모를 잃은 육아보양아며 녀의 아이들, 아니 온 나라 남대도소가 《아버지!》라 스스럼없이 부르며 그이품에 안겨드는데

어쩌면 그처럼 다심할까 인민을 돌보는 손길

어쩌면 그처럼 가슴을릴까 정답다 하시는 말씀

아 인민과 허물없이 마음

우린 할시도 떠나 못할까 원수님 그 품을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억만금에 준대도 살수 없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

## 온 나라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

사람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사회에 젊음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전국대회체육경기대중체육부문(당시) 결승경기를 보시면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도벌대항경기를 조직하는 것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좋은일이라고 하시며 평양체육대회 도벌대항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시며 경기에 바달당기와 같은 종목도 넣도록 해주시었고 도벌대항경기에서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 매기기를 맡고 마지막등수까지 다 매기도록 하는 등 경기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도 가르쳐주시었다. 때로는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어 앞으로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명예를 계속 떨치라고

본기자

본기자

본기자

지난 5월말 서울에서는 국제연기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신한반도체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통일부의 전, 현직 장관들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대학교수, 언론인을 비롯한 수십명의 《대북전문가》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신한반도체제와 과거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회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와 평화경제, 남북단일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신한반도체제》라는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주도적역할》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통일을 구축하고 《평화경제》시대를 열어나

나라의 통일은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우리 겨레가 바라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는것이다. 민족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통일도 있는것이고 우리 겨레가 통일을 이룩하려는것도 민족이 한데 어울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였다. 당시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공장, 주택지들, 역사문화유적이 무참히 파괴되고 이류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수많은 홀어선 가족, 친척들이 생겨나고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오랜 세월을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이 땅에서 누구나 바라는것은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피해는 지난 전쟁시기의 피해와 대비조차 할수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2017년이 저물어가던 시기 온 겨레와 세인이 각일 각 전쟁의 도화선이 타들어 가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

## 무 의 미 한 탁 상 공 론

간다는것이다. 취지는 그럴사해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서 조선반도정세흐름에 어떤 긍정적역할이라도 하는가 하는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사이에 어렵게 마련된 화해협력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북남의 수뇌분들이 합의표현한 역사적인 관문점선언과 9월평양 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폭어지 진 민족의 행복을 있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문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면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협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

가는 문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가 는 문제 등 현시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해나가는데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다 담겨져있다. 이것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우리 민족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북남선언리행은 뒤집어 떨어놓고 《신한반도체제》같은것에 눈길을 돌리고있으니 괴이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학술회의에 출연한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은 저들이 2017년 7월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내놓은 《대북제안》들이 대부분 실현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의의와 생활력을 회색시키는 등만치 같은 소리도 늘어놓았다. 이제 북남

관계는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향해 첫걸음을 떼며 불과하다. 그것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북남선언리행여부에 달려있다.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은 민족이 북남관계에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길에서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고 교착국면에 처하고있는데 대하여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벌어진 이런 학술회의는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공존과 번영, 협력이 속조롭게 이루어지려면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언제 가도 평화변영의 밝은 미래가 있을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

번 학술회의의 주제를 북남선언의 리행과 관련한 문제로 잡았다면 온 겨레의 지지도 받고 여론의 싸늘한 눈초를 받는 일도 없었을것이다. 통일관계전문가들의 학술회의라하면 북남선언들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그 리행을 결고있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방도를 찾는것으로 되어야 마땅한것이다. 오죽했으면 학술회의장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신한반도체제》는 막연한 목표만 내세우고 구체성이 없는 영민 구상이라고 혹평하면서 당국이 대국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대적근성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을 바라다면 허무한 탁상공론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행동에 진심으로 나서야 한다.

### 사회과학원 연구사전인철

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세의 정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신기복

기자: 남조선에서 사회경제적위기가 심화되는 속에 현 당국에 대한 지지도도 갈수록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알고싶다. 지성일: 여기에는 북남관계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대한 대중의 실망도 크게 작용한데다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 《정권》이 대선 이후 북남수뇌상부 세력파 진 행되고 역사적인 북남선언들도 채택되어 당국에 대한 지지율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녘민심을 잘 말해주는것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행동에서는 남조선당국이 지어놓은 밭도 남의 논처럼 보며 마음대로 수저를 들지 못하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흐름도 교착국면에 처하지 않으면 안

## 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할데 대한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요구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북남관계개선이 촉진되고 있다.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주지하느바와 같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분열과 대결의 력사적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지나온 통일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북과 남사이에 아무

리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져도 실천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옹당한 결실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온 겨레와 인류의 지향과 논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변영흐름을 가속화해나가자면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리행해 나가려는 옹박한 관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북남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가 열릴지게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남선언리행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면 오늘의 시대흐름을 정확히 알고 바람에 몸을 맡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생각은 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상견의 비위를 맞추는데 더 신경을 쓰고있다. 외세의 비위나 맞추고 그들의 구미와 리익에 민족내부문제를 북조선시키려는것은 계속과 줄조의 유희가 될 스스로 쓰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북남선언들의 기본목표들을 충실히 리행하는 길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영, 통일의 밝은 때일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 평화통일의 원칙

속히 천명하였다.》고 밝혀졌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게는 평화적으로 통일하지 못할 어떠한 리유도 없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한강로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북남의 우리 겨레가 서로 싸우고 피흘려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북과 남에는 민족분열로 하여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무력행사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룰 때 민족은 명계적의 보다 밝은 앞길이 열릴지게 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지만 침략과 전쟁행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행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평화통일을

주요내용의 하나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겨냥한 의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되어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살아야 했다. 력사적인 관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남조선에서는 여전히 의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적대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올해에만도 남조선군부는 의외와 무려 100회 이상의 연합훈련을 벌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동족을 겨누는 의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서로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군사적긴장을 조어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과 남이 평화변영의 길로 나가기를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의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

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세의 정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북우표특별전시회》진행

남조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주최로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열리고있는 《2019 통일문화축제》에서 《북우표특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북녘의 자연》이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에는 금강산 삼선암우표 등 총 576종에 950여장의 우표가 소개되었다. 전시회장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남녘의 많은 각계층 주민들이 돌아 보았다. 본사기자



### 초불민심이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남조선문제전문가 지성일과의 대담—

기자: 남조선에서 사회경제적위기가 심화되는 속에 현 당국에 대한 지지도도 갈수록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알고싶다. 지성일: 여기에는 북남관계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대한 대중의 실망도 크게 작용한데다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 《정권》이 대선 이후 북남수뇌상부 세력파 진 행되고 역사적인 북남선언들도 채택되어 당국에 대한 지지율은 급속히 높아졌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녘민심을 잘 말해주는것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행동에서는 남조선당국이 지어놓은 밭도 남의 논처럼 보며 마음대로 수저를 들지 못하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흐름도 교착국면에 처하지 않으면 안

하는 현 남조선당국은 보수세력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하고 민심의 《적폐청산》요구도 호지부지 해치우다니 기가 차 죽었던 보수패거리들이 되살아나 사사건건 당국의 발목을 붙잡고 《정권》을 내 놓으라고 울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겨레와 세인이 지지찬동하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도 전면부정하면서 전쟁행동의 이적성기를 되살려놓으려는 이런 반역패당에게는 자비심이 필요없고 오직 민족의 준엄한 철추만이 제적이 다. 권력탈취를 위해 파는이 되어 날뛰는 보수적패력들을 지금처럼 그대로 보지만 하면서 협력할 수 없다 하다가는 《정권》의 존재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밖에 초래될것이 없다고 본다. 기자: 좋은 이야기 들려 주어 감사하다.

## 조선인민과의 연대성운동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 우간다단체들과 쿠웨이트인사 강조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소스에 우간다단체들과 쿠웨이트인사가 5월 29일 지지를 표명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

6월 10일은 남조선에서 6월 인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32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흘러어도 반미파괴세력의 지지를 과시한 그날의 투쟁은 남조선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6월인민항쟁은 의외와 군사파쇼도당의 독재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생활을 안오기 위한 의로운 진원함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파괴투쟁에서 빛나는 한페이지를 장식하였다. 항쟁은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이 인민들의 《개헌》요구를 짓밟고 파쇼《헌법》에 의한 군부독재정권을 시도한것을 발단으로 하여 폭발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항쟁에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족통일》의 구호를 웨치며 집회, 시위, 항의봉성, 시국선언과 성명발표, 단식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일 리였다. 전두환군사파쇼《정권》은 전체 경찰에 《갑비상정계군무령》을 내리고 10여만의 경찰과 특무들을 항쟁진압에 내몰았으나 자유와 민주를 위해

남조선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4일 부산시와 경상남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의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대북제재》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와

일대선 항쟁군중의 걸걸한 투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이 대충적투쟁에 더는 견딜수 없게 된 군부파쇼도당은 《6.29특별선언》과 《특별대화》라는것을 련이 발표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개헌》과 《구속자석방》 등을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루었다. 6월인민항쟁은 불의와 독재

적이면 북남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앞에 놓고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가짜라—타프트협약》을 상기시켜주는 미국의 행 위

최근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대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각방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남녘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미행정부관계자들은 미국을 핵광한 남조선적외부부장,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한미일3각공동주축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해내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주재 미국대사와 미국무성 부대변인 등이 나서는 《한일협력은 미국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떠들어댔다. 미상원 외교위원회도 지난 4월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강화를 위해 남조선일본관계를 개선하라고 이를 바탕으로 《3각공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6월 10일은 남조선에서 6월 인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32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흘러어도 반미파괴세력의 지지를 과시한 그날의 투쟁은 남조선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6월인민항쟁은 의외와 군사파쇼도당의 독재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생활을 안오기 위한 의로운 진원함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파괴투쟁에서 빛나는 한페이지를 장식하였다. 항쟁은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이 인민들의 《개헌》요구를 짓밟고 파쇼《헌법》에 의한 군부독재정권을 시도한것을 발단으로 하여 폭발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항쟁에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족통일》의 구호를 웨치며 집회, 시위, 항의봉성, 시국선언과 성명발표, 단식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일 리였다. 전두환군사파쇼《정권》은 전체 경찰에 《갑비상정계군무령》을 내리고 10여만의 경찰과 특무들을 항쟁진압에 내몰았으나 자유와 민주를 위해

## 《독재타도》의 과녁은 《자한당》

을 용납치 않고 일어나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걸걸한 항거정신을 다시금 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의외와 그의 뒤받침을 받는 군부독재세력이 제아무리 총칼을 휘두르며 발악해도 단결된 인민의 힘을 결코 당해내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의외와 걸갈한 매국노들의 회유와 기만책에 속지 말고 자신들의 념원을 철저히 실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즐기게 벌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

훈도 남겼다. 6월인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지만 항쟁참가자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광주를 피마타에 잠그고 국악무도한 군부파쇼독재를 실시한 전두환도당과 그 후예들이 온갖 치부과 향락을 누리며 활개치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총체적봉괴의 위기에서 헤어나보려고 《민생》을 운

지금 민주화운동을 계승한것처럼 철면피하게 늘어내고있는것은 민주화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30여년전 남녘인민들이 웨치던 《독재타도!》의 구호는 오늘날 《자한당해체!》라는 전인민적인 투쟁구호가 되어 남조선의 거리를 울리게 되고있다. 불의와 독재는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의 비극적말로는 달리 될수 없는 운명이다. 현 지향

남조선에서 보수적계의 본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로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16연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적패당이 벌려놓은 《민생대장정》 놀음에 대해 《민심기만용》, 《초보혁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하면서 초보집회와 시위, 국민청원헌정시위를 통한 청원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역적당의 행적은 크고작은 갖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범죄백과전서》라고 비난하면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것들을 부정부패와 명예훼손, 《국가비밀무출회》에 걸여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 반역당의 해체는 시간문제

한편 《자한당》당사에 대한 돌입시위, 장외화환보내기, 물벼락과 오물세례안기 등 투쟁형식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역적패당을 규탄하고 각계층의 초보투쟁참가를 격려하는 글들이 련일 오르고 있다.

이것은 천하역적무리이며 적폐의 본산인 《자한당》 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자한당》 역적패거리들이 하는 짓이란 민심을 우롱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어지러운 란동뿐이다.

얼마전 당대표라는 자가 《민생》의 가면을 쓰고 근 한달동안 《민생대장정》 놀음에 나섰지만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보수깡패들과 똑같이 놀아대어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자한당》 해체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맞닥뜨려 곤욕을 치르었다.

그런가 하면 《자한당》 패거리들은 비무장지대를 싸다지며 온 겨레가 찬성하고 있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에 피대줄을 두들기듯하며 《군이 정부와 립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내란을 선동하는 짓까지 하였다.

보수세력의 규합과 재집권

공개되어 최순실의 폭독가치인 박근혜역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국정》 룹단에 깊숙이 가담해온 공범당인 《자한당》의 추악한 행적이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박근혜의 종말과 함께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자한당》이 아직도 살아숨쉬며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재집권 야욕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실로 남조선의 비극적인 정치현실이다.

남녘의 민심은 이미 《자한당》에 사망선고를 내리었다.

박근혜 《정권》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 것처럼 초보민심에 도전하여 죄악만을 저지르는 《자한당》의 해체는 필연이며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시 천 상 배 필

김영일

그 경력은 참말 코를 찌를 구린내만 난다

라경원 경력이라 어이 그에 짝지라  
친일로 얼룩진 독재 《정권》 미화에  
입눌림을 결코 아끼지 않아  
《토착왜구》로 인정받은 악녀  
민심기만, 민심우롱의 치마바람 일구며  
싸다니지 않는 곳 없는 정치시녀

정말 잘 어울린다 황교안과 라경원  
《자한당》의 오물더미에 함께 서식하는  
구미개인생은 판에 박은듯 똑같이  
독재의 대를 잇고저 배뺏출 천상배필  
지욕이라 따로 가라  
손잡고 발맞추 무덤에도 함께 가리

박근혜 치마폭에 감겨  
진보말살 민주세력탄압에 광분한 황교안  
독재부활 내놓고 꿰차면 천하악질  
대세따라 뚫을 다는 일등사환군

# 시 운명의 《마침표》나 찍어라

김영일

《마침표》를 찍었다 하느냐  
민심기만으로 이어온 《민생대장정》  
여기저기 부랑차처럼 싸다니더니  
오금이 추신지 뺨을 말도 고갈났는지  
기세등등했던 《대장정》 끝을 맺었다느냐

가련하다 해야 할지  
저참하다 해야 할지  
그토록 《민생부활》 목러지게 꿰쳐어도  
오허려 등돌린 민심  
추락하는 《자한당》의 지지세  
차레전기는 쓰디쓴 모멸과 증오였을뿐

바깥에서 벌린 추태 아직도 모자라  
이제는 안방에 틀고앉아 《정권투쟁》 라령  
그래 나날이 늘어만 나는 막말로 망언  
그것이 너희들 《투쟁》이란거냐  
그것이 재집권의 유일한 방책이더냐

민심과 세간의 버림을 받은  
너희들 운명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 법  
《민생대장정》의 《마침표》가 아니라  
차라리 너희들 운명에 《마침표》나 찍어라  
이것이 민생과 민중을 위해  
너희들 할수 있는 최선의 일거리란다

# 시 민 심 의 선 고

김윤식

나발통 잘도 붙어대느냐  
그 무슨 막말을 삼가하라고  
남녘의 《자한당》 두목 황교안  
제입 구린줄 모르고 혼시질하건만

하나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 했거늘  
하나같이 저를 닮은 《그놈이 그놈》 인데야  
뼈속까지 독 썩은 역적들의 무리  
그 입에서 종다르소리가 나랏

파쇼의 총칼에 쓰러진 광주평흔들  
《북의 지령받은 괴물집단》이라  
악을 쓰며 모독하던 추악한 몰골에도

갖은 악담 쏟아내던 황교안  
너의 그림자 비껴있고

《문빠》며 《달창》...  
칠새없이 쏟아내며 나팔대는  
치마두른 악녀의 주둥이질도  
갈데없는 황교안 너의 입심 닮았다

오수처럼 쏟아내는 갖은 망발로  
민중을 모욕하는 《자한당》의 쓰레기  
무리  
들느냐,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남녘을 진감하는 분노의 합성  
민심은 이미 파멸의 선고를 내렸다



지난 5월 29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중앙총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론란을 일으킨 차명진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을, 정진석에게는 《경고》 처벌을 내리었다고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남조선인민들을 게, 돼지 취급하는 《자유한국당》에게서 그 무엇도 바라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 《자유한국당》은 당총리위원회를 열고 5.18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 당소속 최고위원 김순례와 《국회》의원 김진태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허수룩한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5.18광주인민봉기관련단체들을 비롯

한 각계층이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았다고 들고일어난것은 물론이다. 현실적으로 당대표 황교안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5월 18일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장에 나타나자 분노한 각계층이 물벼락의 자를 던지며 강력한 항의의사를 나타내었다. 《이 정도 정계가 아닌 막말격려》,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못해 포상하는 격이며 막말정당답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세월》호참사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송방망이정계》를 두르고 《우파결집을 위해 막말을 자주 하라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차마 듣지 못할 막말로 극우보수세력들을 끌어안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역무리들의 비참한 파멸을 앞당기는 길로 뻗는다.

본사기자 김응철

《자한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국정룡단행위》

남조선에서 《자한당》을 해체할때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얼마전 이 당소속 《국회》의원인 강효상이 현 남조선당국자와 미국대통령사이에서 전화내용을 공개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져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당들은 《국가기밀무실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만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

이다.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다. 강효상은 운봉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출당을 요구해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자한당》이 그 무슨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강효상을 비호등등하다 《순바다로 하늘을 가리울수는 없다. 한 국가가 강효상의 외교기밀무출사건을 공익제보라고 억지를 부리고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당이 최순실, 박근혜이 저지른 국정룡단이며 외교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자한당》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자한당》 소속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리명박 《정권》 시기 유엔주재 남조선대표부 대사 등 여러 보수인물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가치는 국민이다. 당파적리익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강효상의원의 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남조선상을 상충

중생대의 유라기에 생겨난 뱀은 신화와 전설에도 등장하는것처럼 인간의 발전력과 생활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생김새나 꿈틀거리는 몸통이, 날뽀는 두갈래로 갈라진 혀바닥은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징그럽고 등골이 오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가살스럽고 메스껍게 돌아대는 인간을 가리켜 뱀처럼 징그럽다고 하고 능청맞고 독살스러운 사람의 눈은 뱀눈이라고 하며 실재없이 뽐꼬빠뽐 주절대는것은 뽐꼬빠뽐처럼 나뽀기런다, 잘못 건드려 큰 화를 당하는것을 뽐 썰족이든 하다, 속통이 악착스런 늑은 독사같은 눈이라고 합니다.

구렁이 역시 뽐썰족속인지만 관련된 말들도 귀맛 좋은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렁이 개구리 늑이든, 구렁이 당 넘어가듯, 구렁이 숲속으로 사라지듯, 눈먼 구렁이 평의 알 굴러듯, 서리맞은 구렁이, 내진막은 구렁이,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모른다...

구렁이의 생김새나 생활습성, 그와 관련한 속담들을 들어다보니 《자한당》 대표 황교안에게 참 잘 어울립니다.

《황구렁이》.

《황구렁이》

황교안의 지나간 행적을 봐도 그렇고 이번엔 그 무슨 《민생대장정》을 한담시고 남조선전역을 동분서주하며 저지른 망동 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구렁이는 산이나 풀밭, 늪은 집이나 돌가담 등에 서식하면서 쉼새, 새알,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 데 《황구렁이》는 군부과 쏘죽제 《정권》이라는 《돌각담》에 파리를 틀고앉아 회사의 악법인 《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휘둘러대며 구렁이 개구리 늑이든 진보인사들과 민주통일세력을 옥죄이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렇게 근 30년간 《공안검사》로 악명을 떨쳤는데 《공안검사》라기보다 독사라고 하는게 꼭 맞을겁니다.

천년묵은 암구렁이같은 박근혜가 법무부 장관으로 불려들어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과 정윤희 《국정》 개입사건을 민심의 규탄이 비발치는데도 구렁이 당 넘어가듯 몰락해 덮여치워 역적년의 화를 단탄하였습니다.

왕년의 《공안검사》 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

하고 통합진보당을 《총복세력의 집합체》로 강제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레이자》만 쓴다는 악녀의 눈에 들어 《국무총리》의 자리에 계마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란해당하자 특검의 청와대압수색과 수사가 간연장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은것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을 란용하여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의 7시간행적을 비롯 한 수만건의 범죄기록문서들을

구렁이가 뽐이 되어 큰소리친다고 《자한당》의 대표가 되자 기고만장했지요.

《민생》을 위반하면서도 《국회》를 일 안하는 《식물국회》로 만들어놓고 《자한당》 장래부러움을 내뽐아 《폭력국회》 란장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쉼을 만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더니 《황구렁이》는 가보다 다 풍기도 환경도 사랑도 오묘시킵니다.

《민생대장정》 행각때만

《강력한 대비태세》, 《안보의식》을 떠벌이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는 모골이 송연한 나발도 뽐었는데 동족사이에 총포란이 오가고 삼천리에 황상 전쟁의 불구름이 떠있어야 《황구렁이》의 속이 편한 모양입니다. 참말 차거운 뱀의 심모그대로입니다.

뽐썰족들은 청명파니, 귀머거리에다 코의 기능도 형편없다더니 이 땅에 평화가 될것과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열망이 들끓는 오늘의 현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친치, 바보가 바로 《황구렁이》입니다.

권력야망에 들떠 보수세력권과 파쇼독재부활로 남조선사회와 민생을 또다시 질식시키고 대결의 어제를 한사코 재현하려는 《황구렁이》에게 남조선민심은 침을 뱉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황교안은 정치생동미》

최근 남조선에서 분별을 잃고 날뛰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보수인물들까지도 현당국과 정치적대결을 벌리고있는 황교안을 비난하고있다.

황교안이 5.18광주인민봉기를 감싸고있는 문제, 불교행사에 참가하여 레의를 지키지 않은 문제, 반 《정부》 집회에서 거친 막말을 내뽐은 문제 등이 론건거리로 확대되고 보수층속에서는 《황교안은 역사정치생동미》, 《초학도》라는 환멸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들인 홍준표와 김무성은 《국회》를 뛰쳐나가 거리에서 반 《정부》 캄배나야를 벌이고있는 황교안과 당지도부들 겨

나하여 련일 공개적으로 국민의 60%가 《정권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 막말로 보수계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당지도부는 문제인 《정부》와 대항할수가 없다. 보수가 변하지 못하면 박근혜처럼 망하게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었다.

특히 황교안에 대해 《자랑스러울것이 없는 《뽐》 검사》, 《과거에 얽매어서 거친 막말을 내뽐은 문제 등이 론건거리로 확대되고 보수층속에서는 《황교안은 역사정치생동미》, 《초학도》라는 환멸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들인 홍준표와 김무성은 《국회》를 뛰쳐나가 거리에서 반 《정부》 캄배나야를 벌이고있는 황교안과 당지도부들 겨

《황구렁이》가 그렇게도 뽐살고있는 야단인데 저기 태평양의 수심깊은 《풍용》으로 수장하던지 아니면 《월맹》이라고 개여올리는 대양건너 《어른》들께 현남하는것이 어떨는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그를 민족의 명부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김정혁



#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제힘으로 35일만에 만든 《천리마》호 트랙또르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창조와 기적을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역사에는 첫 트랙또르를 만들어낸 감동있는 이야기도 있다. 기강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첫 트랙또르생산에 걸기 한것은 1958년 10월이었다. 당시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 농촌에서는 로력이 많이 드는 운반작업과 밭갈이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해 트랙또르와 같은 농기계의 대수를 늘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기양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장에서 트랙또르를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업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수 없고 누가 그렇게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 제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손으로 트랙또르를 만들어 내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사실 당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에서 트랙또르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위해 한개 군에 트랙또르를 100대씩 주자고 하여도 200개 군에 2만대가 요구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면 한해에 1 000대씩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이 걸려야 2만대의 트랙또르를 해결할수 있었다. 수입하는데 드는 자금 역시 엄청났다.

일부 사람들은 트랙또르를 생산하겠다는 열의는 좋으나 기술적으로 타산해보고 토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선진국가에서 도면만 그리는데 6개월이상 걸리는데 도면은 언제 그리고 부속품은 언제 깎아서 트랙또르를 한두달만에 만든다는것인가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하지만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트랙또르를 만들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수 없었다. 모두가 제힘으로 만들

어내자며 트랙또르제작에 달라붙었다.

여기서 제일 곤란한것은 한장의 설계도면도 없는것이였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트랙또르를 분해해놓은 상태에서 부속품의 도면을 하나하나 그리였으며 그것을 보면서 부속품을 자체로 깎기 시작하였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여서 어떤 때는 한개의 부속을 깎는데 몇번씩 실패하곤 하였으나 로동자, 기술자들은 트랙또르생산에 온넉과 힘을 기울였다.

2 000여종의 부속품이 있어야 하는 트랙또르를 자기규격에도 맞지 않는 소재를 써가면서 전문 설비도 없이 생산한다는것은 실로 용이한일이 아니였다. 뒤바퀴의 차륜을 프레스로 가공한것이 아니라 강판을 주어모아 용접하고 찌그러진 부분을 산소화기에 달구면서 두드려서 그 형태를 만들었다.

드디어 트랙또르의 조립을 마치고 가슴을 조이며 첫 발

# 공화국선수들이 2019년 국제승구런맹컵경기대회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우승

공화국선수들이 2019년 국제승구런맹컵경기대회(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우승하였다.

이전 경기대회 청년여자승구기와 청소년여자승구기에 참가한 공화국의 선수들은 높은



본사기자 김준경

# 생활속에 자리잡은 《푸른하늘》전자제품들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은 이밖에도 지능형TV, 기능형수직식TV와 일체식, 건반분리식, 휴대용 등 여러종류의 컴퓨터들과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공장에서는 국가품질관리체계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품질관리인증 ISO9001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았다.

푸른하늘합회사에서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인공지능제품, 보급형정보기술제품 및 지능형 정보기술제품과 융합프로그래밍 및 분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새형의 《천리마》-804호 트랙또르들

# 사화 평양성의 군사 (4)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이속하여 대동강에 이른 그는 아까처럼 편광정으로 올라가서 앞을 바라보았다. 과연 강 건너편 기슭은 비어있었다. 갑자기 멀찌감치 물러나있던 왜군장졸들이 벌들지를 쭈셔놓았을 때처럼 황급히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것이 눈에 띄었다. 기슭에 대인 매생이들에서 호용무쌍한 군수들이 내려 도망치는 놈들을 뒤따라며 활을 쓰고 이쪽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올랐다. 얼마후 용사들은 여유작작한 자세로 천천히 자기 배들에 돌아왔다. 매생이들은 다시금 강기슭을 오락가락 떠다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이 편 배들이란 두세명 혹은 네댓명정도 라는 보잘것 없는것들이었다. 고작해서 늙은이들의 낚시질에나 소용된다고 할가?... 그렇건만 그 끔찍한 매생이들이 물에미마냥 가로세로 뻗고있어 이따금 군수들이 물에 올라 활을 쏘면서 적들을 강기슭에 접근시키지 않으니 진정 놀랍기 이를데 없었다.

그런가 하면 조총을 쏘며 앞으로 나오던 한무리의 왜군은 어느 결에 십여명의 주검을 남기고 황황히 물러났다. 한동안이 지나야야 제편 사체들과 부상자들을 슬금슬금 끌어가는것이였다. 무모하게 기슭으로 나오던 놈들은 어김없이 시체로 되었다. 왜병들도 지나치게 놀라는것이 부끄러운지 조총

을 쏘았지만 거리가 멀어 배에는 미치지 못했고 또 가깝다 해도 겁에 질려 겨냥이 정확치 못한 철환은 헛되이 허공을 날았다. 왜병들이 허세를 부리며 강가로 밀려나왔다가도 날아드는 화살에 질겁하여 저마끔 경황없이 도망치는 꼬락서니란 그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광경이였다.

《하하하, 어느 병서에 저런 병법이 있건고 하하하...》 그는 한번도 이같이 통쾌하게 웃어본적이 없었다. 두리의 군관들도 이 웃음에 감연된듯 큰소리로 즐겁게 웃어대고 성벽가에 서있는 군사들 또한 병글거리었다. 모두들 가슴이 후련하여 떠들썩한중에 이곳 방어를 맡은 장수 고언백이 좌의정이 나왔다는것을 알고 달려와서 윤두수에게 군례를 드렸다.

《오, 그래 무고한가. 저기 특한 군사들은 언백이 자체 수하가 아니냐?》 윤두수는 군례를 받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예 그러하옵니다.》 《허- 그랬건군. 자체 신통한 피를 내어 저 흉포한 왜적오랑캐들을 손쉽게 제압하였으니 지모있는 장수일세.》 《아, 저... 아니옵니다.》 언백은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거 피어한 일이로군. 자체가 아니면 누가 그렇듯 신통한 군리를 했겠나?》

이대가리를 들지 못하게 합시다!》

김진의 이 말은 동료군관들을 격동시켰다. 그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적을 먼저 공격하자고 하였다.

그것을 본 김진은 우리가 두었 혹은 서너씩 작은 매생이를 타고 적들 가까이 접근해서 활을 쏘는 동시에 물에 올라 기세를 올리면서 강북편을 재빨리 왕래하면 적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우리를 위협없이 두려워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궁술이 능한 용사들은 크게 신동한 계획이라고 무릎을 쳤다.

군관들의 일치한 찬동을 얻은 김진은 곧 고언백을 찾아가서 매생이를 타고 적을 공격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김진을 비롯한 중수 수십명과 노를 잘 짓는 군사들은 매생이들이 있는대로 다 끌어다가 나누어 타고 건너편으로 나갔고 기슭에 올라 순식간에 적병사오십을 쓸어낸후 화살이 미칠만 한 거리에 떨어져있는 놈들도 보이는 족족 쏘아잡았건것이다. ... 고언백이 들려준 이 말에 윤두수는 물론이고 그 두리의 사람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음- 과시 강한 일로로.》 윤두수는 감심하여 금시 목이 짝 잠긴 소리로 혼자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에 대답이라도 하는듯 요란한 환성이 들려왔다. 성벽에 붙어선 우리 군사들이 기해서 지른 소리였다. 앞을 보니 매생이들이 기슭

을 향하여 일제히 나아가서 비발치듯 화살을 날리고 혼잡한 왜병들이 와- 흩어져 달아빠는것이 확인겨졌다. 총을 거꾸로 쥐고 도망하는 그놈들의 꼴은 실로 가관이였다.

《하하하, 장허거던, 장해, 우리 군사들이 다 저렇듯 용맹스럽다면 왜놈 쥐무들이 제이무리 날뎌들 무엇이 두려우리오. 언백이, 자체 수고나 많았네.》 윤두수는 고언백을 돌아보며 절절 웃었다. 《황송한 말씀이옵시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습시다.》 청찬을 듣고 고언백이 몸둘바를 몰라하자 윤두수는

정녕 우습고 괴이한 이 싸움은 이로써 끝났셈이었다. 김진을 비롯한 용사들은 기세높이 노를 저어 편광정앞으로 돌아왔다.

윤두수는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바쁘게 김진을 불렀다. 어개가 넓고 가슴이 뻐벌어진 건장한 김진은 인차 좌의정앞에 나와 군례를 드렸다.

《네가 진이냐?》 《예, 소인의 이름을 김진이라 하옵니다.》 《너는 오늘 큰 공을 세웠다.》 《황송하옵니다.》 《음- 음- 사나운 왜적의 기세를 우리 장사들이 꼭



정색하여 말했다. 《아닐세. 용장밑에는 약졸이 없는 법이니 그게 다 자체 공이네. 여하튼 자넌 북돋는 사람이야.》 이같은 말들이 오가는 새에 어찌된 일인지 그 많은 왜병들이 눈앞에서 아주 사라지고말았다. 아마도 조선 군사들이 기슭에 배를 대고 물에 올라 공격할가봐 두려웠던 모양이다.

놀러놓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작은 매생이들로 그 많은 왜군을 공격하여 제압할 공을 하였느냐?》 《뭘 별다른 생각한건 아니옵니다. 왜병들이 조총 쏘는것을 보니 한방을 놓은 하군사들을 저느리고 왜적들을 기슭소탕하는 싸움을 벌려 여러차례 큰 전공을 세웠다.》 (끝)

# 김매기

김매기는 한해농사에서 모내기 못지않게 중요한 영농공정이다.

김매기를 하루 늦추면 그만큼 풀이 성하여 곡식이 풀에 잡히게 된다.

김매기를 잘 매추면 풀과 나누어먹던 영양물질을 곡식이 혼자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큰 이삭이 달리고 잘어문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김매기를 중요시하며 김을 여러번 매군 하였다.

모내기를 다그쳐 끝내면서 밭김매기에 힘을 넣었으며 그뒤로 논김매기에 들어갔다.

김매기는 모내기와 함께 한해농사중에서도 품이 많이 드는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하다. 하기에 우리 조상들은 황두와 두레 같은 공동로력협조조직을 무어 서로 도우면서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철에 했다.

본사기자

# 처벌을 받지 않은 원인

한 선생이 어린이들의 솔직성을 키워주기 위해 자기 체험담을 씀이 좋았다.

《나는 어렸을 때 그만 아버지 심은 복숭아나무를 찍어놓고 아버지께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처벌도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손에 도끼가 있었기때문입니다!》